

농어촌공, 상반기 건설현장 위기대응훈련 실시

[박상래]

실전 같은 화재 대응 훈련으로 건설현장 안전역량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12일, 고창군 신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현장에서 2025년 상반기 건설현장 위기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반영해,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위기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유관기관 보고, 현장보존, 사고대책회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숙지하고 실행하며 위기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본사 안전혁신실 건설안전부, 전북본부 안전관리센터, 고창지사 공사 감독, 시공사 및 현장 근로자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화재 발생부터 응급조치, 상황전파, 병원이송, 유관기관 신고, 사고대책회의까지 위기대응 전 절차를 실제처럼 시연했다.

김동인 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반복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무재해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